

가사노동과 시장노동간 남성의 노동분배

-남성들은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조 성 은(성신여자대학교 강사)

정 지 영(여주대학 교수)

윤 소 영(송호대학 교수)

I. 연구의 필요성 : 학문적 관심에서 소외된 '남성의 가사노동'

산업사회 이후 노동 분리 현상이 공간분리나 성별분리와 연계되면서, 가정 내에서 무보수로 수행되는 노동은 '가사노동'으로 지칭되며 이것은 여성이 담당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인식되었다. 반대로 가정 밖에서 보수를 받고 수행되는 노동은 '시장노동'으로 남성들이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성별 노동 분리 현상은 가정에서 함께 생계를 위해 일했던 남녀 성인 중 남자가 먼저 시장노동으로 나가면서 생겨난 역할 분리로서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과 가정주부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고정시켰고, 가족형성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이분화 시켰다.

그러나 최근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증가하고, 특히 기혼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여성 역할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변화현상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여성의 역할과중, 불평등한 노동 구조 등이 주요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5년 9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2천 304만 8천명 가운데 여성 취업자는 970만 6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중 여성의 비율은 42.1%에 해당하며, 특히 40대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11.2%로 20대 남성(8.4%)과 50대 남성(9.6%)보다 높아 전체 취업자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40대 여성이라는 통계청 발표를 보더라도 산업화 시대에 이루어졌던 성별 분리에 의한 역할 분리가 더 이상 받아들여 질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여성과 노동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학문적 관심이 생겨났다. 구체적으로, 취업여성의 가사노동문제, 생활만족도, 자녀양육문제, 가족-일 갈등 등의 주제에 집중되었으며,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에의 참여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문제는 학문 영역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즉 시간량 비교를 통해 남성의 가사노동참여를 조사하거나 여성이 주로 맡고있는 가사노동의 부담측면에서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간접적으로 다루어졌다. 이는 가정 내 남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나 의무감 차원이 아니면 생식자로서의 남성의 정체감과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관심을 두어왔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가정내 역할과 남성 노동에 대한 연구주제는 오랫동안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가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국내 연구의 주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연구는 남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이라기 보다 가사노동에 고착화 되어 있는 성별 노동 분리의

분담 형태를 보여주기 위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즉 부모와 형제, 고용인이 주부와 가사노동을 얼마나 나누어 함께 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둬으로써 가사노동 분담 연구에서 남성이 다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보여주고 있다(조성은, 1998).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가사노동 분담 연구에 남편을 포함시킨 연구가 시작되고, 부부간의 가사노동 분담이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생활의 질이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그 후 1980년대 후반 이후 최근까지 남성을 가사노동의 일부인 양육과 접목시킨 아버지 역할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한편 1988년 이후에는 남편의 가사노동 협력에 대한 주부의 기대, 맞벌이 부부의 역할 수행과 기대, 성역할 태도에 따른 부부간의 가족역할 구조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남편의 가사노동 역할이 부부 역할 구조 중 한 부분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1990년대 연구는 취업주부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시기로 주부의 취업 여부에 따른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정도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이때의 관심은 주로 취업주부와 비취업 주부간의 가사노동 량의 차이로, 이 차이를 살피기 위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정도나 시간량이 측정된다. 비로소 남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연구가 가사노동 분담연구의 일부나 가사노동 중 양육만이 아닌 가사노동 연구의 한 분야로 자리잡게 된다. 이때는 주로 여성의 취업으로 인해 남성의 생계 부양자 역할이 아내와 공유됨에 따라 남성의 가정내 역할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피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여성취업으로 인한 남성의 가사노동 변화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의 연구들은 가족생활주기나 계층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사노동 분담과 관련된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남성의 가사노동량의 변화나 영향요인을 찾기 위한 연구들이었다.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 부부간의 가사노동 역할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사노동 분담과 관련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조성은, 1998).

1990년대 후반 이후 최근의 연구 경향은 남성들의 퇴직과 가정으로의 복귀로 인한 가족관계적 측면에서 남성의 노동을 파악하거나(성미애 외, 2002; 김명자, 2003), 다양한 가족관계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변화와 노동변화의 추이를 분석하거나(윤소영, 2002; 채옥희, 2002; 문숙재 외, 2003; 기은광 외, 2003; 채로 외, 2004) 또는 주 5일 근무제 실시 이후 감소된 노동시간을 가사노동이나 여가시간으로 대체하는 현상을 분석하는(윤소영, 2003) 연구들이다.

학문적 연구를 통해 사회적으로 가사노동과 시장노동부문에서 남성의 특징적인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 것과는 달리 아버지 역할에 관한 다양한 고찰과 연구는 즉, 가사노동 중 아이돌보기, 육아, 자녀교육과 관련된 영역의 연구는 이제 많은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 유치원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는 행사가 자리 잡게 되었고, 이것은 초등학교 체육대회를 학부모와 함께할 수 있도록 야간에 행하는 행사로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제 '좋은 아버지'는 사회에서 바람직한 남성상 중 하나이며, 남성의 도구적인 역할에 포함된 표현적인 역할에도 남성이 기꺼이 함께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로 여겨진다. 이것은 인식의 변화가 수행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며, 결국 가사노동 인식의 변화는 새로운 가사노동 수행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가사노동의 양성공유를 유도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남성들의 노동분배의 변화와 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일 중심으로 살아온 남성이 경험하고 있는 시장노동의 부담과 갈등을 고찰하며, 새로운 역할, 즉 가사노동에의 참여 요구에 대한 남성들의 저항의 정도를 살펴본다. 그리고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신문기사에 게재되기 시작한 남

성의 노동변화를 시장노동과 가사노동 측면에서 조망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시장노동 및 가사노동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그 경향을 분석하며, 이러한 수량적 자료로 파악되기 어려운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신문기사 내용 분석을 실시한다. 우선, 선행연구의 주요부분은 일과 가족, 성별 노동분배, 부부의 가사노동 부담 등의 연구주제에 많은 분석결과를 축적하고 있는 가정학 분야의 연구결과를 통해 고찰된다. 그리고, 남성의 시장노동상의 변화는 남성의 시장노동 부담에 관련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통계청 주당근무시간자료(1970년~2004년)와 노동부 주당노동시간으로 환산한 자료(1993년~2004년)를 비교하여 분석하며, 기타 과로사 및 질병에 관한 정보는 조선일보에 게재된 신문보도 내용(1979년~2005년)을 참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사노동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가사노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찾기 위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등 5개 일간지¹⁾ 기사 중 2000년 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를 분석하였다. 이때 신문기사 가운데 ‘남성 노동’, ‘남성 가족’, ‘남성 가정’, ‘남성 주부’, ‘남성 일’, ‘남성 가사노동’이라는 검색어를 통해 골라진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함께하는 가족의 이상향을 지향하고 가정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남성 노동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 남성의 시장노동과 가사노동

1. 우리나라 남성의 노동 부담과 갈등

한국 남자들은 목숨을 걸고 하루 하루를 살아간다. 그들의 일터에서는 해마다 2600여명이 각종 산업재해로 죽어간다. 그중에는 산재질병 사망자도 500여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4분의 3은 과로로 인한 돌연사, 즉 직업성 스트레스나 정신적 과부하로 인한 심장,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졌다. 가장 활동력이 왕성한 40대 남성들의 사망률은 여전히 세계 최고이고, 50대 남성의 22%는 매일 술을 마신다. 남성 흡연율은 6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노동시간이 주 50시간을 넘어 세계 최장수준인데도 30대의 52%, 40대의 54%는 ‘몸이 아파도 일 때문에 쉬지 못한다’고 하소연한다...

위 내용은 동아일보 매거진의 2005년 11월 3일자 기사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1960년대 이후 반세기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사회는 ‘일 중심 사회’로 변모할 수 밖에 없었으며, 국가시책은 자립경제를 이루고자 하는 열의로 ‘일’하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게 만들었다. 양적 팽창과 ‘성장 제일주의’를 내세우는 정부의 경제성장추구 정책은 특히 남성에게 과중한 경제적 책임을 지웠고, 그 결과 개인의 생활이나 사적 영역은 경시되는 한편 공적 영역이 비대해지고 중요시됨에 따라,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정부나 기업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가정생활 속에 강하게 작용되었다. 집단주의적 가치가 개인의 사생활을 지배하고 ‘삶의 질’ 보다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평가된 조선일보와 노동관련 기사가 가장 혁신적이라고 평가받는 한겨레신문 등을 포함하여 대표적인 5대 일간지를 선택하였다.

‘생산성 위주’의 사회적 가치관이 강조되면서 개인들 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일 중독’ 현상이 가정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적 논리는 가장인 남성에게 ‘직장에서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으로 여기게끔 만들었고 안정된 직장을 가진 남성만이 가정에서도 훌륭한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위치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남성들은 생활시간의 많은 부분을 직장에서의 성공과 경제적 능력을 유지하는데 할애하게 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1997년 말 우리나라에 경제적 외환위기가 발생할 때까지도 계속되어, 남성들의 직장노동 부담을 가속화시켰으며, 더불어 우리나라에 많은 가족 문제를 발생시켰다.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많은 사원들을 대량 감원하였고 실직자 수가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남성들은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남성들이 산업화 사회 이후 계속 갖고 있었던 남성들의 생계유지자 역할, 가정 내에서 갖던 도구적인 역할의 실패를 의미하였으며 경제력을 상실한 남성들은 가정에서의 권위와 위치 상실을 두려워했다. 이것은 시장 노동에 남아있는 남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이들은 자신의 권위와 위치를 지키기 위해 더욱 직장 생활에 몰두하게 되었으며, 또한 조직의 생산성 향상 정책으로 늘어난 과중업무를 기꺼이 감당하게 몰아갔다.

얼마 전까지 40대 남성의 사망률이 세계 1위였던 것이 최근에는 그 연령이 30대 후반으로 내려올 만큼 과중한 중년남성의 스트레스는 숨 가쁘게 진행되어 온 우리나라의 경쟁 논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한 신문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10명중 1명 정도 만이 행복감을 느끼고 있으며 현재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으로 일과 직장생활(40%)을 꼽고 있다고 한다(조선일보, 2005년 7월 14일자)

다시 말하자면, 자본주의적 논리와 가부장적 특성의 결합이 우리나라에서 조직논리의 근간을 이루면서 남성들은 조직에서의 경쟁을 내면화시키고, 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조직에 충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기업은 남성들을 우선시하며 여성들을 배제 또는 차별해왔다(손승영, 1995). 하지만 남성들이 보다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짐과 책임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엇갈린 특혜와 부담 속에서 남성들의 삶은 자신의 사적인 생활이나 자율성의 확보보다는 ‘회사 인간(오사와, 1995)’ 또는 ‘직장 인간’으로 불려 질 정도로 조직인으로서의 삶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지게 되며 자신을 가정에서 그리고 가사노동에서 배제시켰다.

그러나 이제 사회가 변화하였고 산업화 시대에는 합리적이었고 효율성이 높았던 노동분배라 할지라도 이제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성역할분리에 의해 이루어진 노동 분배는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 일에만 전념했던 남성은 일에서 물러났을 때 가정에서 자신이 있을 자리를 찾는게 쉽지 않다. 또한 새로운 일을 찾고자 할 때 여성 영역으로 여겨지는 부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사회적 편견을 견뎌야 한다. 최근 등장했던 남성가정주부와 남자 파출부의 경우 오랜 실직생활을 청산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여성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오던 직업에 도전한 경우지만 가족과 주위의 시선과 편견으로 이 일을 지속시킬 수 없었다는 호소가 있다(채옥희, 2004). 양성적 성역할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실업으로 가정의 성역할을 바꾸어 하는 남성전업주부들의 경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상황임을 볼 때 노동의 성역할 분리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불리하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혼남성은 가족의 생계를 전담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가족이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변화나 계획을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즉 남성들이 가정이나 개인적인 정서, 지지 등의 사적인 측면을 공적인 영역의 일을 위해 희생해 왔다. 그 증거는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자살현황이다.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전체 자살자 중 남성이 71.4%를 차지하여 여성의 2.5배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취직실패나 실직 중 염세, 비판에 의한 것(44.9%)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05년 9월 20일자).

그 결과 남성들은 공적 영역인 사회생활에서와는 달리 사적 영역인 가정생활에서는 점점 더 무력해지고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직장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남성들이 노년기에 직장에서 은퇴하여 생계부양자 역할에서 물러났을 때 까지도 계속되어 이들의 심각한 사회적·가정적 부적응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60세 이상의 노년자살이 전체 자살의 30%에 해당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때 남성들 또한 성별을 근거로 한 노동 분담에 의해 가정으로 돌아 왔을 때도 부적응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자살의 원인도 자신의 처지나 신병을 비판하는 경우가 전체 자살의 과반수를 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남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저항

여성들의 시장노동 참여와 비교하여, 남성들은 일중독, 생계유지자 역할의 과중, 가정에서의 소외감 등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여성과 함께 가사노동을 나누고 여성과 성별분리의 노동 분업을 깨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남성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우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여기에 대한 가장 근거 있는 답은 남성들이 자신을 가족의 생계부양자 역할에만 한정시키고 있다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맞벌이를 하는 남성도 아내가 생계부양의 역할을 같이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일한 생계 부양자 역할을 하다고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홍은정, 1995)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물질적 기반의 마련과 성별분업관념에 따른 남성의 생계부양자 역할은 남성에게는 강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남성들은 생계부양자 역할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역할은 생계부양자뿐이라고 한정짓고 그 인식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여성들의 가사노동 역할 과중 문제와 이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성의 가사노동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는 이렇다할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로 가장 많은 것을 설명해주는 이론이 성역할 관념 가설이다. 성역할 관념 가설은 남성들의 가사노동과 관련된 행동이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부모나 다른 사회문화적 기관에 의한 사회화, 즉 학습을 통해 습득된 것이라고 보는 가설이다. 즉 이 가설에 의하면 배우자 중 하나 또는 둘다에게 전통적인 성역할이 깊이 내면화 되어 있을수록 부인이 전적으로 가사노동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 가설의 전제는 성역할에 대한 관념이 보다 보수적이며 전통적인 남편일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사노동에 더 적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Coverman(1985)의 연구에 의하면 남편이 평등지향적인 성역할태도를 가

질수록 그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인이 평등지향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 경우에는 남편으로 하여금 보다 동등하게 가사노동을 분담하도록 설득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게 되므로 남편의 가사노동이 증가한다고 하였다(송혜림, 1988; Kamo, 1988). 이렇듯 가사노동분담을 설명하는 많은 가설들이 오늘날 나타나는 남성들의 가사노동참여 변화의 미비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거부하는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정도와 상관없이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다.

생계유지자 역할에 강한 부담을 느끼고, 일터를 떠났을 때 가정에서의 소외감에 시달리면서도 남성들은 여성과의 공유와 협력, 평등한 관계보다는 이제까지처럼 아내가 가사노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길 바라며 가사노동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물론 거부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즉 남자라는 이유로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가사노동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가사노동에 참여해야 할 상황을 피하려는 사람, 하기 싫지만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가사노동을 하고는 있으나 상황만 개선되면 가사노동을 안하려고 하는 사람들등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조성은, 1998), 이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여성의 생계유지자 역할의 공유와 상관없이 가사노동으로 부터의 면제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가사노동 연구나 실 사례에서 전문직이나 관리직의 별거형 맞벌이 부부(Commuter Marriage)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 맞벌이 부부들은 일과 가정 생활의 양립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두 영역 모두에서 상호협조가 잘 이루어져 남편들의 가사노동 분담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채옥희, 2004). 그 이유는 가사노동 기술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여기지 않으며, 하기 싫고 자신이 해야 할 노동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실제 생활에서 별거형 맞벌이 부부의 남편들은 의식주 생활 모든 부분에서 가사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때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적 요인이 위에서 언급한 가사노동 기술의 절대적 부족,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여기지 않는 개인적 태도, 가사노동에 대한 선호도라고 한다면, 사회구조적 요인의 대표적인 것은 가사노동을 여성의 일이라고 여기는 성별계층화와 이에 의해 이루어진 사회경제구조이다.

가부장제 문화가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성들이 여성에게 복종을 강요할 수 있었으며 여성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었으므로 남성에게는 가사노동 면제, 여성에게는 가사노동 전담이라는 형태를 낳게 한 것이다. 이것은 더 나아가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이라는 이데올로기까지 형성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가부장적인 사고를 통해 강화됨으로써 남성들이 가사노동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한편 장애가 되고 있다. 즉 남성들에게 있어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이므로 남자들 자신은 가정에서 단순히 남성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등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사회경제체제 구조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가사노동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남성들은 그동안 가정에서 남성으로서 누려온 특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계속해서 아내에게 안락과 편안함을 제공받기 위해 가사노동은 여자의 일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매달림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생계부양자역할이 주는 부담과 스트레스를 방치하고 가족원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아버지,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

Ⅲ. 신문기사 내용분석 :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에서 나타난 남성의 변화

1. 남성의 시장 노동에서의 변화: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1900년대 이후 시작되어 1960년대에 본격화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남성들의 시장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물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이들 분야에 부분적 진출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제한적이었으며 1980년 이후에도 여성들은 단순 노동집약적인 의류, 봉제 등 섬유산업과 전자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후기 산업화를 대표하는 산업은 대부분 남성들의 노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의 산업 발전을 주도한 당시 남성들의 직장관련 시장노동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직장 노동에서의 변화를 찾고자 한다.

1980년대 이후 시장노동 형태는 크게 세 시기로 나뉘어 진다. 우선 고도의 경제성장기인 1980년대부터 1997년 외환위기전까지 꾸준히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으나 노동부담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던 제 1 시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줄어들었던 노동시간이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형태의 변화로 직업안정성이 감소하면서 다시 증가하는 제 2 시기, 그리고 노사정위원회의 근로시간감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주 5일근무제의 시작과 함께 노동시간의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 3시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1) 제 1시기

제 1시기에 해당하는 1980년 고도성장기~1997년 9월 IMF 외환위기 발생 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의 우리나라 남성의 직장 노동에서의 부담은 가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꾸준히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으므로 노동 부담이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절대적인 노동량이 많아서 이것이 과로사와 직업병을 유발하던 시기이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한국인의 주당 근로시간이 꾸준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무 부담이 많아서 세계 8번째로 노동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노동기구(ILO)가 95년을 기준으로 세계 70개국 제조업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들은 49.2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6년 54.7시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로, 아시아에서 스리랑카(51.4시간), 싱가포르(49.3시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이고 조사대상 국가의 평균 시간을 41.5시간보다 20% 정도 많은 것이다(조선일보 1997년 5월 30일자).

지나치게 많은 노동시간과 업무 스트레스는 결과적으로 운동부족과 노동자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원인이 되었다.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90년부터 94년까지 5년간 질병으로 사망하는 근로자가 연간 5백 명이상이 되었고 이중 3/4이상(379명, 75.3%)이 순환기계통의 성인병으로 인한 과로사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 중 11%에 해당된다고 한다(조선일보 1996년 3월 15일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불과 4년 사이에 질병 유소견자와 질병보유율이 모두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조선일보 1996년 5월 17일자), 질병사한 전체 근로자 중 남성 404명, 여성 37명, 미상 4명 등으로 남성이 10배 이상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령별로는 50대와 40대가 각각 176명(36.6%), 140명(29.1%)로 2/3를 차지하여 중장년층의 업무상 과로와 부담이 심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30대(15.6%)와 20대(4.4%)로 20대, 30대, 40대의 과로사가 급격히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조선일보 1996년 2월 11일자), 또한 85년부터 94년까지 한국 남성들의 추락이나 익사, 교통사고 등의 사고사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여성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조선일보, 1996년 9월 11일자).

2) 제 2시기

제 2시기는 외환위기를 겪은 1997년 부터 벗어나는 2001년 사이의 격동시기에 해당한다. 이때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10월부터 1998년에 노동시간이 단기적으로 줄어들어드는 경향을 보이다가 경기악화가 심한 1999년부터 외환 위기에서 벗어나는 2001년 사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는 경제구조의 조정과 이로 인한 직업안정성이 줄어들면서 근로자들의 업무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직장노동에의 절대적인 충성이 강조되었다.

1997년 10월 경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발생함으로써 한국남성들의 노동형태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IMF 한파에 의한 기업에서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임시직 및 일용직이 늘어나고 초과근무가 줄어들면서 단기적으로 주당 노동시간이 줄어들었다. 즉 취업자의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지난 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96년에 비해 일용직(8.7%)과 임시직(5.2%)이 늘어나 36시간미만의 근로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조선일보 1998년 2월 12일자). 또한 외환위기에 의한 경기 위축은 실업자를 증가시켰으며, 특히 일용직과 임시직이 많은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전년도에 비해 실직이 많이 발생하였다(79%)(조선일보 1998년 7월 10일자).

이러한 변화는 직장노동에 인생의 승패를 거는 우리나라 남성 노동자들에게 실직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어 외환위기 전 96년도에 11%에 달하던 과로사의 비율이 97년에는 18.3%로 증가하였으며(조선일보 1997년 11월 5일자), 산재사망의 1/4(24.1%)을 차지하였다(조선일보 1998년 3월 13일자). 전체 국민의 노동시간은 실직과 정리해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로 사망이 증가하였고,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1999년부터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2001년까지는 다시 근로시간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구조조정으로 나간 사람들의 몫까지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조선일보 1999년 12월 9일자). 한국의 직장인들은 '회사형 인간'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쓰러져가는 기업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 회사 내에서 조직을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한다는 풍토가 강화되어 또 다시 일중독자로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산재환자의 자살이나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한 근로자가 꾸준히 늘어나고(조선일보 2000년 10월 24일자) 직장인들의 '만성피로증후군'이라는 직업병이 화제에 오르게 되었다(조선일보 2000년 11월 8일). 뉴욕타임지의 발표에 의하면(조선일보 2001년 6월 11일자), 이 시기에 다시 증가된 업무량으로 인하여 한국인들은 외환 위기에서 벗어나던 2001년에도 조사대상 31개국 중에서 평균 주당 55.1시간으로, 프랑스 40.3시간, 이탈리아 40.5시간에 비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노동하는 것으로 또 다시 평가되었다.

3) 제 3시기

이 시기는 2000년 10월 노사정위원회의 근무시간단축합의문의 영향으로 2002년에서부터 2005년 현재까지 남성들의 근무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생활시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기간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연간 근무시간단축뿐 아니라 주 5일근무제의 시행과 같은 조항들의 실시로 노동구조의 변화와 노동시간의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줄어든 노동시간이 여가와 취미활동 및 휴식과 가사노동 시간으로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는 근로시간의 감소와 임금상승 효과(조선일보 2003년 3월 5일자, 조선일보 2003년 8월 24일자), 기업의 인건비부담 해결을 위한 임시직·일용직 근로 형태 선호(조선일보 2005년 4월 20일자), 노동시간의 여가 및 취미시간으로의 대체(조선일보 2005년 5월 26일자), 더 많은 노동시간으로의 이행과 가족의 불안정성 문제 야기(한겨레, 2003년3월 27일자) 등 노동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효과나 예측이 지적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IMF로 인해 노동 불안정감이 높은 상황에서 일어난 대량해고와 맞물린 주 5일제는 줄어든 인원이 줄어든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역할 과중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더욱이 주 5일제 근무로 늘어난 자유 시간을 또는 유연한 근무시간제를 이용한 2-3개의 직업을 병행하는 사람들의 증가, 대량해고와 권고사직을 경험했거나 동료들의 경험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추가근무의 증가, 일용 근로자의 증가로 인한 시장노동구조의 불안감은 단순히 주5일제가 이루어진다고 모두 여가시간, 또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바뀔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당겨진 퇴직연령과 늘어난 수명, 짧아진 시장노동년수는 시장노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여가보다 이윤추구를 우선하게 만들 수 있다.

물론 외국의 경우도 이러한 문제들이 지적된 바 있다. 미국의 '가족과 노동연구소'에 따르면 주당 20시간 이상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77년 43.6시간에서 97년 47.1시간으로 증가했고 '가족임금의 위기'를 배경으로 가족 여가시간은 노동시간으로 대체되었다(한겨레, 2003년 3월 27일). 또한 비정규직 확산을 비롯한 노동시간의 신축화(불규칙한 노동시간 배치)역시 가족시간과 가족생활의 안정을 위협하고, 노동시간의 신축적 재배치로 교대근무, 야간작업과 함께 주말노동도 확산시켰다. 80년대 중반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이 토요일에, 8명 가운데 1명은 일요일에 정규적으로 노동을 했다. 전통적인 주 5일 근무자는 97년에 모든 노동자의 54.4%에 지나지 않았다. 하루 노동시간도 9시-17시제에서 벗어나 새벽 이른 아침시간과 저녁시간 이후로 분산되었고 이것은 24시간제 사회(24시간 슈퍼마켓, 백화점 등)와 24시간제 교대근무 체계(3교대 근무 등)는 밤을 '식민화'하며 비인간적인 삶의 지대를 만들어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근로자들의 노동시간 증가 현상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한국방송과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자료(1985-1999)를 토대로 분석한 '직업별 노동시간의 변화'를 보면, 90년대 후반 들어 정상근무 노동자 비중은 계속 줄고, 거꾸로 밤, 새벽, 주말 노동이 뚜렷이 확대되고 있다. 밤 9시에 일하는 노동자는 6.7%(85년)에서 14.2%(99년)로, 밤 12시 노동자는 1.7%(85년)에서 5.2%(99년)로, 새벽 2시 노동자는 1.1%(85년)에서 3.2%(99년)로 늘었다. 반면 낮 11시에 일하는 노동자는 71%(85년)에서 62.3%(99년)로 줄었다. 특히 사무기술직과 경영직, 전문직을 중심으로 토, 일요일 노동시간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취업자의 토요일 노동시간은 5시간 58분(85년)에서 6시간 37분(99년)으로, 일요일 노동은 3시간 22분(85년)에서 4시간(99년)으로 늘었다(한겨레, 2003

년 3월 27일자).

따라서 주5일제가 시행되어 보편화되더라도 사회적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늘어나는 생활비용과 여가를 위해 증가하는 비용의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 가족 노동시간은 더 늘어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과잉노동을 하면서 서로 노동 시간표가 다르게 일을 할 경우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일도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일용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한국도 미국처럼 여가가 오히려 줄어들고, 가정생활시간이 줄어드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 남성 노동 변화와 가사노동의 참여 경향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은 1997년 10월에 나타난 IMF사태라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 상태로 인해 급격한 노동 구조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 현상은 대량의 남성 실업자를 만들었으며 산업화사회에서 가졌던 가부장제의 권위를 위협했고, 이들은 더 이상 생계유지자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이때 남성보다 먼저 해고되기 시작했던 여성실업자는 1차적인 생계유지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직되면서도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했던 시기이다. 이 당시 여성들은 가정에서는 '남편 기살리기'의 희생자로, 사회에서는 '우선해고' 1순위자로 이중고를 겪고 있었지만(남춘호 외, 1998). 그 이전에 갖고 있던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남성이 더 이상 생계유지자 역할을 못한다는 것에 더욱 많은 관심이 쏠림으로써 여성인권침해는 물론 남성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즉 IMF 이후 한국사회는 기존에 있어왔던 남성과 여성의 일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변화시킬 필요성이 강하게 부각되었지만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가부장 중심의 가족을 강조함으로써 실추된 권위를 되살리고, 여성이 어머니, 아내로서의 전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부추김으로써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더욱 혼란스러운 고통을 경험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었던 노동에서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이다. IMF해고 이후에도 여성들의 시장노동진입은 계속 증가하였고, 남성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여성영역으로 여겨졌던 시장 일에 도전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는 이제 새롭게 바뀐 21세기의 사회에서는 더 이상 문제 해결방안이 될 수 없으며 남성, 여성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기에 새로운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찾기 위해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남성과 관련된 가사노동 관련 기사의 특징을 5대 일간지를 중심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과 남성이 균등한 분배를 위한 시도가 이루어진다는 증거를 찾고자 했다.

물론 남성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은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신문에 나타난 새로운 주제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이전 시기에는 신문에 기사로도 다루어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보다 자주, 그리고 새롭게 다루어진다면 그것은 새로운 변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 또는 개인적 시도가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 새로운 정책시행의 효과

우리나라에 새로운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첫 번째 증거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을 늘려줄 만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은 주5일 근무제와 남성의 육아휴직제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미약하지만 가사노동 시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주 5일 근무제, 즉 주 2일 휴무제는 집 밖으로만 나돌던 직장인을 집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효과가 있다(조선일보, 2005년 6월 25일자). 하루를 마음껏 놀아도 하루가 남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남성들은 자연 집안일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남성들도 가사에 기여하는 할 수 있는 뭔가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다. 한편, 남성의 육아휴직제도의 시행은 남성과 여성이 자녀양육의 책임을 함께 나누도록 한다는 취지를 가진다(조선일보, 2005년 10월 21일자). 육아휴직의 일정기간 사용을 의무화하는 아버지 휴가제도는 그동안 여성이 주로 해온 1년간의 육아휴직 가운데 1-3주를 아버지가 쓰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이다. 저출산 문제로 우리보다 앞서 대책을 마련해왔던 영국의 경우 신생아를 둔 아빠의 경우 3개월 유급 휴가까지 허용된다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제도는 사회발전상에 비추어 볼 때 도입될 수 밖에 없는 제도로 여겨진다.

그러나 통계청(2005)의 '200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른 가사노동의 차이는 여전히 현저하며, 가사노동에서 남성의 참여가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하루 평균 가사노동에 32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들의 3시간 11분이나 미국과 핀란드 남성들의 1시간 50분과 1시간 57분과 비교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한겨레, 2005년 6월 4일자).

한편 일본의 남성은 우리나라 남성의 32분 보다 더 낮은 28분의 참여를 나타내는데, 그 원인에 대해 일본정부는 2004년 출산율 1.28명이라는 사상 최저치의 기록을 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였으나 효과를 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남성 가부장제'가 지적되는데, 이는 곧 '가사노동의 민주적 분담'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증명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노동분담은 단순한 개인의 역할과중문제를 벗어나 국가 존재와 자립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인구수를 결정하는 결정요인이 되며, 따라서 가사노동 분담을 평등화 하려는 노력은 국가의 정책적으로 다루어지는 사안이 되어야 한다. 이는 오늘날의 남성과 그들의 노동변화, 그리고 가사노동참여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시각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정부의 노력과 정책의 시행은 가정에서 가사노동의 민주적 분담을 가능하게 하는 비옥한 토양을 이룬다. 그런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비록 극히 미약한 변화이긴 하지만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늘어나고 여성은 줄어드는 모습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육아 휴직이 도입될 경우 가사노동 분야 중에서도 양육분야에서 제일 먼저 남성의 참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2) 느린 변화에 대한 인지

느리지만, 그리고 통계에 잡히지도 않지만 한국 남성이 변화했다는 증거가 있다. 이제까지 천천히 변화했다면 앞으로 사회변화와 함께 이 변화도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 여성들의 보고에 의하면(중앙일보, 2004.1.18),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근 대적인 가부장적 사고에 젖어 사회 적응을 못하고 있는 북한 출신 남편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별거나 이혼을 택하고 있다. 그리고 갈등없이 잘사는 부부는 예외없이 남자가 경제력이 있거나 아내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북한에서는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여성의 사회 활동이 활발함에도 가정생활에서는 남성 우위의 봉건적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어 북한 남편들은 마치 60년대 남한의 남편들과 같은 의식을 갖고 있다는게 탈북자들의 설명이다. 즉 1950년 전쟁으로 남북이 갈린 이후 남한의 탈가부장제가 북한보다 빨리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가사노동으로 까지 눈에 띄는 변화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남한에 와 TV드라마를 접한 북한 여성들은 북한 보다 남한이 평등한 부부관계를 갖고 있다고 본다(중앙일보, 2004년 11월 25일).

탈북 여성들은 남한 남성을 여자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자상하게 집안일도 잘 거들어주는 남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북한 남성과 달리 가정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보이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남북 분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가정에 대해 같은 생각과 행동을 했던 단일민족임을 기억할 때 기존 가사노동 연구에서 발견할 만큼의 남편의 극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남한의 남성이 북한의 남성에 비해 좀더 가정친화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음을 알려주는 기사이다. 또한 북한여성들이 남한의 드라마를 보며 남성들의 가정적인 모습을 알게 된다는 것을 보면 드라마에 나오는 남성이 현시대 남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때 남성들의 변화는 느리지만 조금씩 일어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경험의 증가

세 번째 증거로 남성들이 직접 해본 가사노동 수행관련 기사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자신의 좋아하는 영역, 싫어하는 영역들에 대한 기사(조선일보 2005년 5월 1일자), 명절 준비 할 때 가사돕기를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중앙일보 2004년 9월 23일자)등이 대표적이다. 명절 때만 돕는다는 것은 물론 평상시에도 가사일을 한다는 것으로 비약해서 해석할 수는 없지만 명절 때 일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평일로 확대되길 기대해볼만 할 것이다. 또한 남성들이 가사노동 수행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좋아하는 영역과 싫어하는 영역이 기사로 다루어져 신문에 실릴 수 있다는 것도 최근의 새로운 경향이다.

사단법인 청년여성문화원과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가 지난 13-21일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3%가 '명절 가사노동에 남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답했고, '아니오'라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43%로 가장 많았고, '그저 그렇다'는 답이 34%로 뒤를 이었다. '명절 준비에 남성들이 5-6년 전에 비해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는 질문에도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41%였다. 이어 다소 적극 참여35%, 매우 적극 참여 16%, 더욱 부진 7%순이었다(중앙일보 2004년 9월 23일자).

또한 30-40대 남성 직장인의 88%는 어떤 방식으로든 집안 일을 돕고 있으며, 가장 자신있는 집안 일로는 요리를, 가장 하기 싫은 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꼽았다. '집안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0%, '동등하게 가사를 분담하다' 18%, '주말 또는 시간이 날 때 거든다' 40%였으며 '거의 돕지 않는다'는 12%에 그쳤다. '가장 자신있는 가사'로는 요리(24%)가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쇼핑(14%), 재테크(11%), 빨래(10%) 등의 순이었다. '반사회에 대신 참석한다'(1%)는 응답도 있었다. '집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2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집안수리(13%), 설거지(11%), 육아(7%), 자녀학습 지도(6%)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드라마처럼 아내가 일을 하고 자신이 가사를 전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71%에 달했으며 '경제력 등 여건에 따라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은 29%였다. 현대백화점 유통연구소 김인호 소장은 "가족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확산,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주5일 근무제 정착 등으로 남성들도 가사를 당연히 공유해야 할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근 백화점들이 남성 전용 휴게공간을 설치하고 가족 이벤트를 늘리는 것도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조선일보, 2005년 5월 1일자).

제일기획에서 서울과 경기 분당 신도시에 거주하는 20-40대 기혼 남성 700명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한 것도 이 같은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 조사에 의하면 평균 결혼 연수가 6.52년이고 평균 연령이 34.04세인 대졸 이상 사무직 종사자 140명의 경우 최근 한달 동안 가정에서 가사노동 참여한 데 대한 응답을 집안 청소 72.1%, 설거지 56.4%, 이불 개기 42.9%, 세탁 35.7%, 화장실 청소 35.0%, 식사준비 33.6%등으로 나타나 가사에 참여한다고 답하였다(동아일보 2002년 10월 31일자).

4) 전업주부 남편에 대한 인식 변화

IMF이후 남성과 노동관련 특이할 만한 기사는 가사,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이용해 남성들이 육아나 집안일을 전담했던 경험과 제언이 기사로 다루어지고(중앙일보 2005년 7월 25일자), 가사 전담 남성이 늘고 있다는 내용이다. 주부라는 것이 여성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자 하는 시도였으며, 어렵고 드문 일이지만 남성이 시도했다는 증거가 신문에 나타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7월 현재 461만명인데, 이중 사유가 '가사'인 사람이 11만1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만4천명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지만, 2003년의 7만3천명보다는 84%나 늘어났다는 보도(한겨레 신문, 2005년 9월 12일자)가 그것이다.

이와 같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전업주부 남편에 대한 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2000년대의 특이할 만한 변화로 파악된다. 26일 채용정보업체 커리어다음(www.career.co.kr)에 따르면 성인남녀 1810명을 대상으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 남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설문을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7.6%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란 응답중에는 '남편이 가사일에 소질과 흥미가 있다면'이 33.9%로 가장 많았고 '부인이 가계경제를 책임진다면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32.8%로 뒤를 이었다. 커리어다음은 이에 대해 부부역할 분담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세태에 맞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응답자 중 32.4%는 '남편이 육아와 가사를 잘할 수 없고 여성의 직장생활이 남성보다 힘들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전업주부 남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전업주부 남편에 대해 결혼 3~5년차 기혼자들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결혼 7년차 이상 응답자들은 전업주부 남편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커리어 흥성훈 대표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시대가 변하면서 남녀의 구분 보다 개인의 능력과 자아실현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며 "가정에서도 이런 역할과괴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선일보, 2005년 4월 26일자).

또한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20-30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자가 가정살림을 하고 여자가 사회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72.9%의 남성이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고 대답했고 이때 30대는 67.9%, 20대는 75.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나이가 어릴수록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2000년 1월 9일자).

더욱이 미국의 한 경제지에 1980년대 말 성공한 중장년 남성이 조강지처와 이혼한 뒤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재혼하는 것을 두고 마치 성공의 보상으로 아내를 트로피처럼 받는다고 해 생겨났던 '트로피 아내'에 대응하는 말로 요즘 아내가 밖에서 일하는 편이 더 뜻 깊다고 판단해 과감히 일을 던져 버리고 주부 역할을 자임하는 '트로피 남편'이 생겨났다. 또한 호주에서도 국조인 키위 수컷이 암컷과 새끼를 극진히 보살피는데서 비롯된 '키위 허즈번드'라는 말이 있고 보면 전업주부일을 하는 남성이 생겨난다는 것은 세계 전체의 흐름일 수도 있다(동아일보 2004년 2월 26일). 이렇듯 남편이 가사일을 전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가사와 육아가 소중한 일이라는 인식과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육아를 책임져야 아이가 제대로 된다는 교육관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같은 경제지에 따르면 미국의 최고 여성사업가 50명중 3분의 1에게 트로피 남편이 있다고 한다.

5) 새로운 아버지상 제시

남성의 새로운 변화 가운데 한 가지는 새로운 아버지상에 대한 것이다. 신문에는 가족단위 쇼핑객을 위해 아이와 함께 쇼핑하는 아버지를 위한 라운지가 백화점에서 운영된다는 보도가 실리거나(한겨레, 2005년 8월 9일자), 딸의 아침을 챙겨주는 아버지나 아들의 육아일기를 쓰는 아버지의 사례가 소개되며(한겨레, 2005년 9월 6일자), 아이들에게 빵을 구워주고 싶은 아빠들이 등장하고(한겨레, 2005년 5월 1일자), 아이를 잘 기르고 싶어 육아교실을 다니는 남성들이 나타나며(한겨레, 2005년 4월 13일자), 육아는 아빠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남성들의 사연이 소개된다(조선일보, 2005년 4월 26일자). 이들은 성역할 편견을 깨고 싶어 하며 생계유지자로서 일에 시달리던 남성 가장이 아닌 가족원으로 함께 어울리고 아버지 역할에 비중을 두는 남성들이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이다.

(재)서울여성의 자녀양육 지원공간인 '별난 놀이터'가 연 부모교육 시간을 열었을 경우 참석자 가운데 절반이 30-40대 아빠들이었고, 이들은 "아이와 잘 지내고 싶은데 경상도 남자라 무뎡뎡한 데다 아이 다루는 법을 잘 모르겠다"며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강의에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한겨레, 2005년 4월 13일자). 이 중 한사람은 뜻하지 않은 실적으로 1년 동안 전업주부로 생활했던 두 아이의 아버지. 이 때 아이 키우기를 전담하면서 '살림'의 중요성과 부당한 성별분업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아이 함께 키우기'가 평등 가족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일들은 모두 음식만들기, 빨래, 청소 등의 '살림'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살림은 아이들을 키우고 사람이 살기 위해 기본적으로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며 "가정에서 육아를 함께 하며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일은 공동체 의식에서 출발한, 작은 공동체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실직 등으로 전업주부가 된 이들이 아니더라도 아이 키우기를 함께 하려는 아빠들은 점차 늘고 있다. 이제 남성들도 "자식이 클 때 무관심한 아빠는 세월이 흐른 뒤 무관심을 되돌려받게 돼있다"고 생각한다(한겨레, 2005년 4월 13일자). 그리고 이것은 육아에서 나아가 아내의 산후조리 부담까지도 시어머니나 장모를 비롯한 다른 여성들

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는 데 까지 확산되고 있다(조선일보, 2005년 4월 26일자).

6) 양성성의 추구

여섯 번째 증거는 한국인 남녀의 절반 이상이 양성성을 추구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양성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여성성, 남성성을 허물어 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인식의 변화이며 이를 통해 남성 영역, 여성영역도 살라지게 할 수 있는 의식적인 노력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다.

제일기획은 17-39세 남녀 300명(남성 150명, 여성, 150명)을 대상으로 한 '2004년 우리시대 남녀의 조용한 혁명'이라는 보고서에서 남성의 66.7%, 여성의 57.3%가 '양성형'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한겨레, 2004년 12월 26일자). 그 결과 남성은 여성적인 섬세함을 갖추고 자신의 외모를 적극적으로 가꾸는 등 패션에 관심이 많아졌고, 여성은 리더십을 갖추고 자의식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조사는 '남녀의 성 역할 변화는 한때의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조사에서 또한 한쪽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남녀관계보다는 서로 돕고 살아가는 관계를 원하고 있다고 하며 28-39세 사이의 기혼 직장인들은 강인한 남성상을 거부하고 부드럽고 섬세한 남자가 되려고 노력하며 맞벌이와 가사분담은 기본이며 때로는 남성이 전업 주부가 되거나 육아휴직을 하고 싶지만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는 세대라고 보고 하고 있다.

양성성은 한국인 성인 남녀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여성부에서 실시한 초등학생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80%가 아빠가 집안일을 할 수도 있다고 답할 만큼 양성평등 의식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겨레, 2005년 4월 20일자). 이들은 '아빠가 집안일을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80.6%)'로 답할 만큼 가사노동에서 성별분리를 의식하지 않고 있었고, 성별에 따른 직업구분도 없다(68.1%)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그리고 양성평등교육이 학교 차원에서 환영받고 있음을 볼 때 성별분업에 의한 노동분담은 점점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을 낳게 한다.

7)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추구

마지막으로 남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의식이 달라지고 있음이 지적된다. 가정경제를 떠맡는 가장으로서는 무거운 책임에 짓눌렸던 과거와 달리 자신에게 투자하고 스스로 즐거움을 누리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미혼남성은 여성보다 더욱 맞벌이 가족을 원하고 아내가 취업했을 경우 대부분의 남성이 가사노동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녀를 갖고 싶어하지 않거나 노후에 자녀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받을 생각이 없는 기혼 남성이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집안 일을 아내와 나눠서 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피부관리 등 외모 가꾸기에 지출하는 것을 '투자'라고 생각하며 아내와 여자친구를 제치고 인터넷 쇼핑몰의 '큰 손'쇼핑족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가족을 위한 경제적 부양이 부담스러운 남성일수록 작은 수의 아이를 갖거나 자녀를 원치 않으며 아이를 기르는 것도 심리적 즐거움을 위해서기 때문에 노후 자금과 노후 생활 운영 방안을 이전 세대보다 보다 구체적으로 관리한다(동아일보 2002년 10월 31일자).

제일기획에서 남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한 경우(동아일보 2002년 10월 31일자)에도 평균 34.04세의 대졸 사무직 남성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건강이나 질병(71.4%)이었으며, 그 다음이 가족(46.4%), 재산증식(36.4%)가 그 뒤를 이어 직장(35.0%)보다 가족이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위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32.1%)으로 이제 남성들도 직장보다는 가족을 중시하는 가치를 갖고 사는 것으로 보여 일중심의 생활을 해온 1980년대 남성들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IV. 새로운 제안 : 남성의 균형잡힌 노동분배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통계자료, 그리고 신문기사를 분석하여 남성의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의 분담 현실을 살펴보고, 점진적인 그 변화 동향을 지적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산업사회의 성별 노동분리 현상과 가부장제도의 결합이 어떻게 노동자로서의 남성과 주부로서의 여성의 이분법적 노동분리 현상을 고착화하였고, 남성들의 과도한 격무나 가정에서 소외되는 문제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가족과 노동의 주제에서 기존의 연구들이 어떠한 관점과 입장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남성의 변화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들은 시장노동에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면서 시간구조의 변화나 의식의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변화는 곧 가사노동에의 참여나 분담이라는 변화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신문기사에서 나타난 최근의 변화로 남성들의 가정에서의 참여나 역할변화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방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남성들이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의 균형적인 노동분배를 통해 시장노동에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 구성원으로 결속된 역할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에 대해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성들은 여성이 담당하던 가사노동을 기꺼이 함께 분담할 때, 여성과 생계부양자 역할을 당당히 나눌 수 있으며 자신의 부양자 역할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역할분리로 인한 은퇴후 가족내에서 소외되는 문제점과는 달리, 남성의 가사노동에의 참여는 은퇴후 생계유지자 역할이 사라졌을 때도 남아 있는 표현적 역할 수행을 지속함으로써 가족내 소외감, 정체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점차 노인의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부간 평등한 노동분배는 중장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것 뿐 아니라 은퇴후 노인 부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양성적인 역할 수행은 새로운 적응력 높은 인간을 만듦으로써 독신가구, 노인가구가 증가하는 사회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남성 독신가구, 노인가구의 독립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성들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기 위한 사회구조적인 환경의 변화가 요구된다. 여기서 사회구조적인 환경이란 남성들의 가정역할 수행과 가사노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적인 개선 뿐 아니라 남성들이 보다 쉽게 가사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나 기술 습득을 포함한다. 정보화 사회의 다양한 기계와 서비스, 물질의 제공은 가사노동에 대한 노동부담을 줄였으며, 가정내에 남게되는 노동은 궁극적으로 생존에 필수적인 요인이거나 여가 및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가족원의 기본적인 생활유지나 즐거움을 위한 최소한의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가족원 모두의 삶의 질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가족구성원 모두 독창적이며 만족감을 주는 생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가정내 영역은 여성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

실을 알아야 하며, 이러한 사회환경적인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융통적인 역할수용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가사노동이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의 변화부터 시작한다. '여성'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로 바뀌어야 하며,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여성과 남성 모두를 포함한 우리 가족의 일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또한 가부장적 사회제도에 길들여져 있는 현실에서 이미 지내온 삶의 경험과 굳어진 의식의 변화를 단시간에 이끌어 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즉 가부장제와 성별계층화에 의한 가사노동에서의 성별 분리는 이제 여러 세대를 거쳐 고정된 생활양식으로써 사회적으로 적합한 성적 행동 특성으로 굳어져 있으므로 나만의 인식변화와 행동변화를 일으키려 해도 가족과 주변의 편견을 견뎌낼 자신과 용기를 갖춰야 한다. 이것은 남녀 모두에게서 변화시키기 어려운 행동특성이라는 신념을 갖고 자녀에게 까지 평등한 관계를 사회화 시키려는 노력을 확대시킬 때 변화는 이루어질 것이다. 사회화의 기능은 무엇보다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담당하는 부모 역할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사내아이는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딸은 어머니와 합치되어 표현적인 일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결국 가족의 성 역할 모델은 자녀에게 내면화되어 자녀는 전체 사회의 성역할 구조를 내면화한다. 가족의 역할 구조는 성별뿐만 아니라 세대간의 위계질서도 포함하므로 아동들은 가족내에서의 성과 세대에 대한 사회화를 거쳐 가족 밖의 사회구조인 학교, 친구 집단, 장래 자신의 가족 및 직업 집단 등에서 기대하는 역할로 사회화된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역할을 바꾸고 싶어도 사회에서 기대하는 역할과 다를 경우 변화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 사회구조 속에서 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구조가 바로 남성들 가사노동 참여를 거부하게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가부장제적인 인식은 앞으로 균형잡힌 부부간 역할 구조를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어려움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새로운 이데올로기 형성을 위한 노력과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을 위한 교육, 새로운 노동 분담을 통한 사회화 등을 통해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장란혜(2000). 아버지 역할과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 동향(1)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4), 87-102.
- 고기숙·이혁구(2004). 중년기 직장 남성의 사회적 위기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환경특성 및 자원봉사경험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3, 9-41.
- 기은광·이기영(2003).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공평성 인지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61-75.
- 김명자(2003). 퇴직한 남편과 그 부인의 탄력성과 적응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6), 117-128.
- 김영주(1995). 신문에 실린 아동양육관련 기사를 통해서 본 아버지 역할 내용분석 -1920년대에서 1970년대의 동아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5), 153-167.
- 김진희(2005). 남성의 아버지 역할수행과 유능감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남성 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13-123.

- 김진희 · 한경혜(2002). 남성과 여성의 일, 가족 전이와 관련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0(11), 55-70.
- 김태현 · 김양호(2003). 중년남성의 남성역의식, 직장생활 및 가족생활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1), 99-120.
- 문숙재 · 윤소영(2009). 결혼과 노동. 교문사.
- 문숙재 · 윤소영(2003). 맞벌이 주말부부의 생활시간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213-220.
- 박미혜(1993). 사회학자들이 본 남성과 여성. 한울아카데미.
- 성미애 · 옥선화(2002). 남성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화 및 유형별 퇴직 후 적응도. *대한가정학회지*, 40(1), 1-22.
- 손승영(1997). 경제변화에 따른 조직내 남성의 역할 변화 인식과 갈등. 제1회 건강가족상수립을 위한 세미나, 급변하는 사회에서 중년기 남성이 겪는 갈등과 극복, 1-16.
- 안정옥(2002). 현대미국에서 시간을 둘러싼 투쟁과 소비적 현대성: 노동, 시간과 일상생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미경(1996).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와 부모역할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87-102.
- 윤소영(2002). 독신의 시간사용과 여가활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209-217.
- 윤소영(2003). 주 5일 근무제와 가족자원의 변화-남편과 아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7(2), 81-97.
- 이승미(1994).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충북대)*, 3(1), 23-32.
- 조미환(1998). 도시 기혼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와 가정생활 만족도, *한국여성교양학회지* 5, 5-20.
- 조성은(1998).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혜정(1983). 성공적인 다역할 수행에서 역할 나누어 갖기로. *여성연구*, 1(1), 68-81.
- 채 로 · 이기영(2004).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65-281.
- 채옥희(2002). Commuter Marriage 남편의 가사노동수행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215-225.
- 홍숙기(1994). 일과 사랑의 심리학. 나남출판.